# <김현감호>와 <최치원>에서의 기이(奇異)의 형상화 양상과 차별적 시선*

엄 기 영**

< 目 次 >

Ⅰ. 머리말
Ⅱ. <김현감호(金現感虎)>의 경우
Ⅲ. <최치원(崔致遠)>의 경우
Ⅳ. 맺음말

Key Words : 기이(strange), 이계(the other world), 이물(an alien substances), 차별적 시선(discriminatory sight)

## <要 旨>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서사 양식 중 전기(傳奇)와 지괴(志怪)는 낯선 것, 낯선 것과의 만남, 낯선 체험을 포착하여 서사화한 대표적인 장르이다. 이 글은 <김현감호(金現感虎)>와 <최치원(崔致遠)>에서 기이(奇異)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별적 시선이 개입하고 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김현감호>는 김현이 죽기 직전에 지은 호녀(虎女)에 대한 전(傳)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현에게 있어서 호녀는 죽는 순간까지 일상(日常)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김현이 지은 전은 호녀라는 비일상적 존재와의 만남에 대한 김현 나름대로의 정리이자 해석인 것이다. 김현은 자신이 체험한 기이를 하늘의 뜻으로 돌리는 등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그 결과 그는 방관자적인 면모를 보인다. 김현의 이런 태도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그가 죽는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3066122].

**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한국고전서사문학 전공

www.kci.go.kr

순간까지 호녀의 존재를 기이의 차원에서밖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적 욕망에 이끌려 이물(異物)에게 미혹(迷惑)되었다는 혐의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최치원>에서 최치원은 김현과 달리 전혀 기이에 압도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이 만난 두 여성이 이계의 존재라는 점이 아니라 두 여성이 정절을 지켰는지의 여부이다. 그리고 두 귀녀(鬼女)들은 자신들을 미색(美色)으로 인간/남성을 미혹하는 여우나 두 남편을 섬긴 여자들과 구별한다.

이렇듯 <김현감호>와 <최치원>에서는 '기이'를 서술함에 있어서 '구별하기'가 중요하다. 인간에게 낯선 존재인 이물에 대해서도 인간/남성의 기준에 따른 위계(位階)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낯선 존재, 낯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못하고, 그것을 인간/남성 중심적인 일상의 논리와 윤리의 차원에서 순치(馴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균열과 흔적을 남긴다.

## Ⅰ. 머리말

낯선 것과의 만남, 낯선 체험은 우리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특히 그것이 일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일 때에는 이는 일시적인 혼란을 넘어 세계관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한 대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해하고 적응하든가, 아니면 배타적으로 배제하고 거부하든가.[1)]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보다 세심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의 경우, 이해와 적응이라고는 하지만 이 또한 결국은 이해하고 적응하는 입장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배타적으로 배제하고 거부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러이러해서 배제하고 거부한다'는 식의 설명이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낯선 존재나 체험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볼 때 이해와 적응, 배제와 거부는 어느 한 쪽 과정만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1) 리처드 커니 지음, 이지영 옮김『이방인, 신, 괴물』, 개마고원, 2004, pp.11-44 참조

www.kci.go.kr

즉, 이해되고 적응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배제되고 거부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서사 양식 중 전기(傳奇)는 지괴(志怪)와 더불어 이런 낯선 것과의 만남, 낯선 체험을 포착하여 서사화한 대표적인 장르이다.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은 지괴와 전기라는 장르를 통해 이계(異界)의 존재 여부와 그 속성을 탐색하는 한편, 이를 소재로 하여 인간 세계의 다양한 문제와 욕망을 그려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괴와 전기 같은 장르가 낯선 존재, 낯선 체험을 서사화한다는 것은 결국 비일상적인 존재를 일상의 관점에서 인식 가능한 것, '어떤 식으로든' 설명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일종의 계열화, 범주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태평광기』(太平廣記)의 그 촘촘하고 체계적인 분류를 떠올릴 수 있다.[2] 낯선 존재, 낯선 체험은 그것이 '그 무엇'일 때 불안한 것이지 '기이(奇異)한 것'이라는 말로 규정되고 범주화되는 순간, 달리 말하면 그것이 왜 기이한 것인지 설명되는 순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런데 낯선 존재, 낯선 경험을 지괴와 전기라는 서사 양식을 가지고 구체화했지만 서사화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포섭되지 않는, 혹은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는 균열이나 흔적으로 남는다.

<김현감호(金現感虎)>와 <최치원(崔致遠)>은 우리 서사문학사에 있어서 이른 시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전기로 평가받아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된 상황이다. 그간의 연구 경향은 대체로 김현(金現)과 호녀(虎女), 최치원(崔致遠)과 귀녀(鬼女)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성격은 무엇인지를 구명(究明)하는 데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기이를 서사화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주목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본고에서는 기이(奇異)를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낯선 것에 대한 어색함, 불안감, 꺼려짐 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결과 기이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

2) 전체 500권에 이르는 『태평광기』는 수록 작품들을 그 소재에 따라 92류(類)로 나눈 후, 이를 다시 150여 세목(細目)으로 나누었다. 『태평광기』의 편찬과 유전에 대해서는 張國風 『太平廣記 板本 考述』, 中華書局, 2004, pp.1-479 참조

www.kci.go.kr

## Ⅱ. <김현감호(金現感虎)>의 경우

일연(一然)은 <김현감호>를 『삼국유사(三國遺事)』「감통(感通)」편에 수록해 두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김현(金現)과 호녀(虎女)의 만남과 이별
② 김현의 후일담
③ <신도징(申屠澄)> 인용
④ 일연의 논평(論評)과 찬(讚)

그런데 작품 내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김현과 호녀(虎女)의 사연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삼국유사』에 수록되었다. 첫 번째는 김현이 호원사(虎願寺)를 세웠을 때이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김현과 호녀 사이의 사연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김현을 제외하면, 당시 모든 사람들은 김현이 그저 자신에 의해 죽임을 당한 호랑이를 불쌍히 여겨 그 명복을 빌어준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두 번째는 시간이 한참 흘러 죽음을 앞둔 김현이 호녀를 대상으로 전(傳)을 지었을 때이다. 이제야 비로소 당시 사람들은 김현과 호녀의 사연을 알게 된다. 세 번째는 일연에 의해 김현과 호녀의 사연이 '김현감호'라는 제목으로 『삼국유사』「감통」편에 수록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일연은 철저히 불교적/남성적 시각에서 김현과 호녀의 사연을 해석했으며, 이를 위해 <신도징(申屠澄)>을 의도적으로 변용하기까지 하였다.[3] 이상의 단계를 거쳐 <김현감호>는 김현과 호녀의 첫눈에 반한 사랑, 가슴 아픈 이별, 호녀의 숭고한 희생, 이를 평생 잊지 못한 김현 등의 내용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4]

---

3) 一然은 金現과 虎女의 사연을 불교적 시각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申屠澄>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一然은 <申屠澄>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등장하는 虎女를 '의도적'으로 歪曲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정출헌 『김부식과 일연은 왜 - 삼국사기 삼국유사 엮어읽기』, 한겨레출판, 2012, pp.187-191 참조. 그리고 <金現感虎>는 16세기 權文海가 편찬한 『大東韻府群玉』에 <虎願>이라는 제목으로 축약되어 실려 있으며, 그 출전을 『殊異傳』이라고 하였다. 박희병 교수는 一然의 논평과 『三國遺事』에서 네 글자로 된 제목이 흔히 발견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金現感虎'보다는 '虎願'이 原題이거나 원제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박희병 標點·校釋 <虎願>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pp.54-55 참조. 이 또한 一然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김현이 호녀와의 사연을 내내 함구하다가 죽음에 임박해서야 전을 지어 기록했다는 점이다. 물론 김현이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하다. 호녀라는 존재, 그리고 그런 존재와의 만남이 일상에 속한 인간들에게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 "김현이 죽음에 임하여 지난 일의 기이함에 깊게 느낀 바가 있어서"[5]라는 서술의 "기이"에서 확인되듯이, 김현에게도 죽는 날까지 호녀는 일상(日常)의 논리로는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6]

이런 점에서 볼 때, 김현이 호녀를 대상으로 전(傳)을 지은 것을 단순히 호녀와의 사연을 기록했다는 정도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말 일이 아니다. 김현이 전을 지은 것은 호녀라는 비일상적(非日常的) 존재와의 만남에 대한 김현 나름대로의 정리이자 해석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현감호>에서 그려진 호녀의 형상이 어디까지나 김현의 해석을 거친 결과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

4) 임형택 교수는 <김현감호>의 김현을 화랑으로, 호랑이를 신라 말 각처에서 일어났던 저항적·반체제적인 세력의 상징으로 보고, 호녀를 "신분간의 대립갈등이 격화된 시대가 창출한 고귀한 희생정신의 여성 형상"이라고 설명하였다. 임형택 「나말여초의 전기문학」,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pp.16-17 참조
이에 대해 이정원 교수는 호녀의 희생에 주목하면서도 이를 일상세계의 부정성을 환기하는 성찰적 계기라고 설명하였다. 이정원 「조선조 애정 전기소설의 소설시학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3, pp.1-187 참조
박일용 교수는 호녀의 희생이 거창한 이념적 명분을 내세운 자발적인 행위로 형상화되지만 정황상 현실 질서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박일용 「소설사의 기점과 장르적 성격 논의의 성과와 과제」, 『고소설연구』 제2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7, pp.5-32 참조

5) 『三國遺事』 「感通」 <金現感虎> "現臨卒, 深感前事之異, 乃筆成傳."
본고에서 <김현감호>와 <최치원>을 인용할 때에는 이대형 편역 『殊異傳』, 소명출판, 2013에 수록된 원문과 번역을 이용하였다. 다만 번역의 경우 필자가 수정한 부분이 있다. 이하 같음.

6) 박일용, 앞의 논문, p.26에서 "서술자를 대변하는 체험 당사자인 김현이 호녀에 대해 겪은 자신의 체험을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하면서 이는 김현이 "호녀가 왜 자신을 사랑하고 왜 희생을 했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필자도 김현이 자신의 체험을 기이하게 여긴 것이 호녀를 입전(立傳)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는 여기에서 김현의 관찰자·방관자로서의 성격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볼 때 <김현감호>는 '김현과 호녀 사이의 사연'이라기보다는 '김현이 호녀라는 비일상적 존재를 만난 경험을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www.kci.go.kr

사실을 감안하고 다시 <김현감호>를 읽어보도록 하자.

> 처음에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양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출 수 없으니 감히 내심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낭군과 비록 류(類)가 다르지만 하루 저녁의 즐거움을 얻어 중한 부부의 의(義)를 맺었습니다.[7]

호녀는 김현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양하고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 자신이 김현과 같은 류(類)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하지만 호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바는 자신과 김현이 같은 류(類)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김현과 부부로서의 의(義)를 맺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사람이 사람과 사귀는 것이 떳떳한 인륜(人倫)의 도리(道理)요, 다른 류(類)와 사귀는 것은 대개 상도(常道)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새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천행(天幸)입니다.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 벼슬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8]

김현과 호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같다. 즉, 김현과 호녀는 서로 다른 류(類)이고, 이들의 만남이 상도(常道)는 아니지만 둘은 이런 구별을 뛰어넘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인간의 부부 관계와 다르지 않다. 아니 그보다 더 모범적인 부부의 형상이다. 아내 호녀는 남편 김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남편 김현은 아내 호녀와의 의(義)를 무엇보다 중하게 여긴다.

그런데 김현과 호녀의 발언 사이에는 일견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바로 둘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이다. 호녀는 둘 사이의 결합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임을 말하면서 부부로서의 의(義)를 강조한다.[9] 하지만 김현이 강조하는 바는 다르다. 김현은 둘의 만남이

---

7) 『三國遺事』「感通」<金現感虎> "始吾恥君子之辱臨弊族, 故辭禁爾, 今旣無隱, 敢布腹心. 且賤妾於郎君, 雖曰非類, 得陪一夕之歡, 義重結褵之好."

8) 『三國遺事』「感通」<金現感虎> "人交人, 彝倫之道, 異類而交, 盖非常也. 旣得從容, 固多天幸, 何可忍賣於伉儷之死, 僥倖一世之爵祿乎?"

9) 이런 까닭에 호녀는 김현에게 자신과의 인연을 잊지 말 것을 자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되풀이해서 부탁하는 것이다.

www.kci.go.kr

하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서로 느낌이 통하여 눈길을 주고받고 그 결과 정(情)을 통했음에도 불구하고[10]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에 의한 것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늘의 뜻으로 돌리는 김현의 이러한 인식과 자세는 상대방인 호녀에 대한 보다 진전된 탐색을 가로막는다. 호녀가 왜 흥륜사에서 탑돌이를 했는지, 왜 자신이 속한 호족(虎族)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들과 다른 면모를 보이는지, 왜 그토록 담담하게 스스로 죽을 수 있었는지 등등 호녀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이 애초에 차단되는 것이다. 그 결과 호녀는 오로지 희생을 위해 존재하는 형상으로 그려지게 된다.

김현의 이러한 인식은 <김현감호>의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작품 내에서 김현의 능동적인 역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김현은 호녀와의 만남이라는 기이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인 태도보다는 상황에 이끌려가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김현에게 있어서 호녀와의 만남은 그 자신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뜻'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이 상황에서 그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김현은 배필의 죽음을 팔아 벼슬을 바랄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죽는 것은 '천명(天命)이요, 스스로 바라는 바이며, 낭군의 경사(慶事)요, 호족(虎族)의 복(福)이며, 나라 사람들의 기쁨'이라며 죽음을 자처하는 호녀의 뜻에 그저 울면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11] 그리고 호녀를 다시 만났을 때에도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는 호녀를 한번 만류하지도 못한 채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다.[12] 김현에게는 호녀와 함께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맞서 '대결'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는 것이다. 결국 김현은 방관자이자 사후(事後) 기록자에

---

10) 『三國遺事』「感通」 <金現感虎> "有郎君金現者, 夜深獨處不息, 有一處女, 念佛隨遶, 相感而目送之, 遶畢, 引入屛處通焉."

11) 『三國遺事』「感通」 <金現感虎> "女曰, '郎君無有此言. 今妾之壽夭, 盖天命也, 亦吾願也, 郎君之慶也, 予族之福也, 國人之喜也. 一死而五利備, 其可違乎? 但爲妾創寺, 講眞詮, 資勝報, 則郎君之惠莫大焉.' 遂相泣而別."

12) 『三國遺事』「感通」 <金現感虎> "現持短兵, 入林中, 虎變爲娘子, 熙怡而笑曰, '昨夜共郎君繾綣之事, 惟君無忽. 今日被爪傷者, 皆塗興輪寺醬, 聆其寺之螺鉢聲則可治.' 乃取現所佩刀, 自頸而仆."

www.kci.go.kr

머물고 만다. <김현감호>에서 작품의 상당 부분이 호녀의 목소리로 채워져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현감호>에서 김현은 왜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고도 명료하다. 김현이 만나서 정을 통한 존재가 인간이 아닌 짐승, 그것도 맹수인 호랑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정도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 김현이 진정으로 꺼린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김현과 호녀의 만남이 젊은 남녀의 충동적인 성적 결합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김현은 달밤에 흥륜사(興輪寺)에서 탑돌이를 하다가 한 여성과 눈이 맞았고, 즉흥적으로 관계를 맺었다. 그것이 얼마나 충동적이었는지는 김현이 호녀를 이끌고 가서 관계를 맺은 장소가 기껏해야 사람들의 이목(耳目)을 겨우 피할 수 있는 으슥한 곳(屛處)이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김현이 육체적 욕망 때문에 이물(異物)에게 미혹(迷惑)되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김현감호>에서는 김현에 대한 이러한 혐의를 피할 수 있는 서사적 장치가 필요한데, 하나는 앞서 언급한 대로 호녀와의 만남을 하늘의 뜻으로 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호녀를 인간(김현)을 미혹하는 요망한 존재가 아닌 인간다운 존재로, 아니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존재로 그려내는 것이다.

사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다섯 가지 이로움이 있음을 말하면서 심지어 이를 나라 사람들의 기쁨과 연결 짓고, 자결하기 직전에도 자신의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치료까지 챙기는 호녀의 형상은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13] 하지만 이로 인해 "짐승으로서도 어질기가 그와 같은데, 지금은 사람으로서도 짐승만 못한 자가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14]라는 일연(一然)의 탄식을 자아내기

13) 선행 연구에서 호녀의 행위와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엇갈린 것은 虎女의 이러한 인물 형상 때문일 것이다.

14) 『三國遺事』「感通」<金現感虎> "獸有爲仁如彼者, 今有人而不如獸者, 何哉?"
虎女에 대한 一然의 이러한 발언은 沈旣濟의 <任氏傳>에서 任氏에 대한 "嗟乎, 異物之情也有人道焉! 遇暴不失節, 徇人以至死, 雖今婦人, 有不如者矣. 惜鄭生非精人, 徒悅其色而不征其情性. 向使淵識之士, 必能揉變化之理, 察神人之際, 著文章之美, 傳要妙之情, 不止於賞玩風態而已. 惜哉!"라는 논평과 상통한다. 沈旣濟 <任氏傳>, 上海辭書出版社 編, 『古代小說 鑑賞辭典 上冊』, 上海辭書出版社, 2004, p.310

www.kci.go.kr

까지 하였으니, 호녀의 인간적·도덕적 면모를 강조하고 김현에 대한 혐의를 씻어버리는 데에 있어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15]

이처럼 <김현감호>에서 김현과 호녀의 만남, 호녀의 인물 형상 등을 그려내는 과정은 김현이 성적인 욕망으로 인해 이물에게 미혹되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김현감호>의 이러한 특징은 <최치원>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 Ⅲ. <최치원(崔致遠)>의 경우

<김현감호>의 김현이 호녀와의 만남이라는 기이(奇異)에 압도되어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최치원>의 최치원은 매우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애초에 최치원과 두 귀녀(鬼女)가 만나게 된 것도 최치원이 지은 시(詩) 때문이었다. 율수현위(溧水縣尉)로 부임한 최치원이 율수현 남쪽에 있는 쌍녀분(雙女墳)에 갔다가 그 석문(石門) 앞에 시를 써 두었는데,[16] 최치원의 시에 감동한 두 귀녀가 그를 초대했던 것이다.[17] 그리고 귀녀들이 최치원을 초대한 것은 그의 시에 감동해서이기도 하지만 "고운 그대를 꿈에서라도 만날 수만 있다면 긴긴 밤 나그네 위로함이 무슨 허물되리오 고관(孤館)에서 운우(雲雨)의 만남 이룬다면 그대들과 낙천신(洛川神)을 이어 부르리"[18]라는 시구에서 확인되듯이, 귀녀들에 대한 최치원의 적극적인 태도 때문이기도 했다.[19]

---

15) 박일용, 앞의 논문, p.27에서는 <김현감호>는 "짝의 죽음을 팔아 일세의 작록을 누린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김현이 죽기 전에 자신의 행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16) <崔致遠> "乾符甲午, 學士裵瓚掌試, 一擧登魁科, 調授溧水縣尉. 常遊縣南界招賢館, 館前岡有古塚, 號雙女墳, 古今名賢遊覽之所. 致遠題詩石門"

17) <崔致遠> "忽覩一女, 姿容綽約, 手操紅帋, 就前曰: '八娘子·九娘子, 傳語秀才. 朝來特勞玉趾, 兼賜瓊章, 各有酬答, 謹令奉呈.' 公回顧驚惶, 再問: '何姓娘子?' 女曰: '朝間披榛拂石題詩處, 卽二娘所居也.'"

18) <崔致遠> "芳情儻許通幽夢, 永夜何妨慰旅人 孤館若逢雲雨會, 與君繼賦洛川神."

19) 이와 더불어 崔致遠이 鬼女들에게 보낸 答書의 "今宵若不逢仙質, 判却殘生入地求"라는 표현 또한 그의 적극적인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www.kci.go.kr

이 때문일까? 최치원은 유명세계(幽冥世界)의 존재인 두 귀녀와 그녀들의 시비 귀금(翠襟)을 만났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최치원에게 있어서 유명세계의 존재와의 만남 그 자체는 별다른 경이(驚異)로움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치원은 이러한 만남이 가진 기이성(奇異性)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그의 관심은 두 귀녀가 여성으로서 정절(貞節)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에 맞춰져 있다. 최치원은 두 귀녀를 만나자마자 대뜸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보인다.

> 아름다운 밤 다행히 잠깐 만나뵙건만
> 어찌하여 말없이 늦봄을 마주하시나요
> 진실부(秦室婦)를 알게 되었다 했더니
> 원래 식부인(息夫人)인 줄 몰랐구려[20]

여기에서 진실부는 진라부(秦羅敷)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녀는 왕의 유혹을 받자 자기에게는 훌륭한 남편이 있음을 노래로 지어 부르며 거절했다고 한다. 그리고 식부인은 원래 식후(息侯)의 부인이었는데, 초(楚)나라 문왕(文王)이 식(息)나라를 멸망시키고 부인으로 삼았다고 한다. 최치원은 두 귀녀를 만나자마자 이들에게 자신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가 있지는 않았는지부터 물은 것이다. 이에 귀녀들은 경멸을 당했다고 크게 화를 내면서 식부인은 두 남편을 섬겼지만 자신들은 한 남자도 섬긴 적이 없다고 대꾸하는데, 그러자 최치원은 농담으로 이 상황을 얼버무린다.[21]

하지만 최치원이 쉽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두 귀녀가 원치 않는 혼인 상대를 거부하다가 결국 울적한 마음이 맺혀 요절했다는 절절한 사연을 이야기하며 혐의를 두지 말 것을 부탁함에도 불구하고,[22] 최치원은 어찌 혐의를 두겠냐고 하면서도 곧바로 다시 이렇게 묻는다. "무덤에 깃든 지 오래되

---

20) <崔致遠> "芳宵幸得暫相親, 何事無言對暮春 將謂得知秦室婦, 不知元是息夫人"

21) <崔致遠> "紫裙者恚曰: '始欲笑言, 便蒙輕蔑. 息嬀曾從二婿, 賤妾未事一夫.' 公言: '夫人不言, 言必有中.' 二女皆笑."

22) <崔致遠> "紫裙者隕淚曰: '兒與小妹, 溧水縣 楚城鄉 張氏之二女也. 先父不爲縣吏, 獨占鄉豪, 富似銅山, 侈同金谷. 及姊年十八, 妹年十六, 父母論嫁, 阿奴則定婚鹽商, 小妹則許嫁茗估. 姊妹每說移天, 未滿于心, 鬱結難伸, 遽至夭亡. 所冀仁賢, 勿萌猜嫌!'"

www.kci.go.kr

었고 초현관(招賢館)에서 멀지 않으니 영웅과 만나신 일이 있을 터인데 어떤 아름다운 사연이 있었는지요?"[23] 최치원은 귀녀들에게 죽기 전은 물론이고 죽은 후에도 다른 남자가 없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결국 최치원과 두 귀녀의 본격적인 만남은 "왕래하는 자들이 모두 비루한 사람들뿐이었는데, 오늘 다행히 기품이 오산(鼇山)처럼 수려하신 수재(秀才)를 만났으니 함께 현묘(玄妙)한 이치를 말할 만합니다."[24]라는 귀녀의 대답이 있고 나서야 시작된다.

최치원이 두 귀녀의 정절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과 달리 두 귀녀는 최치원이 자신들이 이계(異界)의 존재라는 사실을 꺼리지 않을까 염려를 한다. 다음은 두 귀녀가 최치원이 석문에 앞에 적어둔 시에 화답한 시의 끝부분이다.

> 몹시 부끄럽게도 시로써 제 마음 알아주시니
> 고개 늘여 기다리고 한편으론 마음 상합니다[25]
>
> 양왕(襄王) 모시고 운우(雲雨)의 정 나누려 하나
> 이런저런 온갖 걱정에 마음 상하네[26]

두 귀녀들은 최치원을 초대한 시에서 자신들이 여러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녀들은 무슨 걱정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것일까? 실마리는 바로 위 구절에 있다. 귀녀는 자신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 늘 진녀(秦女)처럼 속세를 버리기를 원했지,
> 임희(任姬)가 인간을 유혹한 것은 배우지 않았도다.[27]

여기에서 진녀는 진(秦)나라 목공(穆公)으로 딸로서, 소사(蕭史)와 함께 봉황을 타고 인간 세상을 떠났다는 농옥(弄玉)이며, 임희는 <임씨전(任氏傳)>의 주인공 임씨(任氏)를 가리킨다. 귀녀들은 자신들과 임씨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

23) <崔致遠> "致遠曰: '玉音昭然, 豈有猜慮?' 乃問二女: '寄墳已久, 去館非遙, 如有英雄相遇, 何以示現美談?'"
24) <崔致遠> "紅袖者曰: '往來者皆是鄙夫. 今幸遇秀才, 氣秀鼇山, 可與話玄玄之理.'"
25) <崔致遠> "深愧詩詞知妾意, 一回延首一傷神"
26) <崔致遠> "欲薦襄王雲雨夢, 千思萬憶損精神"
27) <崔致遠> "每希秦女能抛俗, 不學任姬愛媚人"

www.kci.go.kr

있는 것이다.

귀녀들은 왜 자신들을 임씨와 엄격히 구별하면서 스스로를 농옥에 견주었던 것일까? 그것은 임씨의 정체가 인간이 아니라 여우였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임씨가 미색으로 인간 남성을 홀렸기 때문이다. 귀녀들이 자신들과 임씨를 엄격하게 구별한 이유는 <임씨전>에서 남성 주인공 정생(鄭生)이 임씨의 정체를 알게 되는 장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정생이 자기가 자고 온 집을 가리키면서 묻기를 "여기로부터 동쪽으로 돌아서 문이 달린 집이 뉘 댁이오?"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거기는 허물어진 집터로 빈터가 남아 있을 뿐, 집은 없는데요." 라고 했다. 이에 정생은 "지금 내가 그 곳을 지나왔는데 어째서 집이 없다고 하시오?"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주인은 그제야 마침 생각이 떠오른 듯, "아 아, 알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우 한 마리가 있어 흔히 남자를 유혹해서 함께 자곤 하는데 여태까지 벌써 세 번이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도 또 당하셨나요?" 라고 말했다. 정생은 얼굴을 붉히면서 "그런 일은 없소이다." 하며 숨기고 말았다.[28]

임씨는 정생에 대해 절의를 지켰고, 결국 정생의 어리석음과 잘못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임씨전>의 작자 심기제(沈既濟)는 이런 임씨에 대해 오늘날의 여성들 중에도 임씨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찬탄하고, 정생에 대해서는 임씨의 미모만 좋아했을 뿐 그 성정(性情)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이다.[29] 하지만 심기제의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임씨가 정생을 만나기 전에 인간 남성을 여러 차례 홀렸다는 사실은 귀녀들이 자신들을 임씨와 엄격하게 구별 짓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귀녀들은 혹시나 자신들이 최치원으로부터 여우라는 의심을 받지 않을까 염려한 것이다.

이렇듯 <최치원>에서 최치원은 귀녀들의 정절에 대해 의심하고, 귀녀들은 자신들이 임씨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

28) 沈既濟 <任氏傳>, 上海辭書出版社 編, 『古代小說 鑑賞辭典 上冊』, 上海辭書出版社, 2004, p.306. "鄭子指宿所以問之曰, '自此東轉, 有門者, 誰氏之宅?' 主人曰, '此隤墉棄地, 無第宅也.' 鄭子曰, '適過之, 曷以云無?' 與之固爭. 主人遽悟, 乃曰, '吁! 我知之矣. 此中有一狐, 多誘男子偶宿, 嘗三見矣. 今子亦遇乎?' 鄭子赧而隱曰, '無.'"
번역은 정범진 편역 「임씨전」, 『당대소설선집 앵앵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5, pp.79-80

29) 14번 주석에서 인용한 沈既濟의 논평 참조

www.kci.go.kr

서로 엇갈린 시선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엇갈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최치원과 귀녀들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끊임없이 '구별하기'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문사와 장사꾼을, 비루한 이와 그렇지 않은 이를 구별하며, 인간과 동물(여우)을, 정절을 지킨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를 구별한다. 이러한 '구별하기'는 특히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 내가 이곳에서 두 여자를 만난 것은
> 양왕(襄王)의 운우(雲雨)의 꿈과 비슷하도다
> 대장부여, 대장부여!
> 남아라면 모름지기 아녀자의 한(恨)을 없애주어야 할 터,
> 마음을 요망한 여우에게 연연하지 마라[30]

최치원이 두 귀녀들과 헤어진 후 이들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지은 장시(長詩)의 끝부분이다. 최치원은 자신이 두 귀녀를 만난 것을 양왕(襄王)이 무산(巫山)의 신녀(神女)를 만난 것에 비긴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미색에 혹하여 여우의 정체를 몰라본 세상의 사내들과 구별 짓는다.[31] (작품 내의 전고를 고려한다면, 구체적으로는 <임씨전>의 정생이 최치원과 대조되는 세상의 사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두 귀녀의 한을 풀어준 것으로 규정한다. 이것이 최치원의 해석을 통과한, 귀녀와의 만남이 가진 '일차적' 의미[32]가 되는 것이다.[33]

---

30) <崔致遠> "我來此地逢雙女, 遙似襄王夢雲雨, 大丈夫, 大丈夫, 壯氣須除兒女恨, 莫將心事戀妖狐"

31) 맨 마지막의 "요망한 여우(妖狐)"의 해석을 두고 그간 다양한 설명이 있어 왔다. 그 논란의 핵심은 왜 최치원이 두 귀녀를 두고 "요망한 여우"로 표현했냐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애초에 "요망한 여우"가 두 귀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을 가져올 뿐이다. 문맥을 고려하더라도, 자신을 양왕에, 두 귀녀를 무산의 신녀에 견주었으면서 곧바로 두 귀녀들을 여우로 비유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32) 여기에서 '일차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귀녀와의 만남은 최치원에게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최치원이 갖게 된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그가 신라로 돌아오는 길에 읊었다는 "浮世榮華夢中夢, 白雲深處好安身"라는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그간 <최치원>의 주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역사적 인물 최치원을 작품 해석에 투영한 것으로, 여귀들과의 만남은 최치원에게 삶에

www.kci.go.kr

## Ⅳ. 맺음말

앞서 밝혔듯이, <김현감호>와 <최치원>에는 남성 주인공 김현과 최치원이 성적인 욕망으로 인해 이물(異物)에 미혹되었다는 혐의를 의식하고, 이를 감추거나 정당화 하려고 한 부분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기이(奇異)'에 대한 시선과 관련되는데, 이러한 혐의의 문제는 철저한 '구별하기'를 통해서 해결된다.

김현은 처음에는 호녀(虎女)와의 사연 자체를 함구한다. 그리고 죽음에 임박해서야 호녀와의 사연을 전(傳)으로 옮기는데, 이 과정에서 호녀에게 있어서

---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당시 소외된 지식인의 '시대와의 불화'를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에 따르면 귀국 후 최치원의 遊歷은 그의 정치적 좌절을 상징하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수 있다. 임형택, 앞의 논문 ; 김종철「서사문학사에서 본 초기 소설의 성립 문제」, 다곡이수봉선생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고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88, pp.183-208 ; 박희병「나려시대의 전기소설」,『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pp.113-172 ; 이동환「쌍녀분기의 작자와 그 창작 배경」,『민족문화연구』제37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2, pp.1-74. 다른 하나는, 역사적 인물 최치원을 작품 해석에 투영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최치원>에서 그려진 성적인 욕망에 집중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최치원을 소외된 지식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풍광한(風狂漢)'적인 면모가 두드러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수 있다. 조혜란「남성 환타지 소설의 시작, <최치원>」,『여/성이론』, 여이연, 2003, pp.126-143 ; 최귀묵 「전기 <최치원> 다시 읽기」,『문학치료연구』제1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pp.37-60 ; 김경미「전기소설의 젠더화된 플롯과 닫힌 미학을 넘어서」,『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제2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pp.213-242.

한편, 이정원, 앞의 논문, p.34에서는 "최치원은 텍스트 외적 실존 인물에 대한 선험적 지식에서 비롯되는 소외된 인물 형상과 귀녀와의 결연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한량 같은 인물 형상이 뒤섞인 존재이다."라고 하여, 최치원의 인물 형상에 대한 반대되는 견해를 절충하였으며, 박일용「<최치원>의 형상화 방식과 남·녀 주인공의 성적·사회적 욕망」,『한국고전연구』제2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pp.5-32에서는 성적인 욕망과 함께 여기에 내재한 사회적 욕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김현양「<최치원>, 버림 혹은 떠남의 서사」,『고소설연구』제32집, 한국고소설학회, 2011, pp.41-63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한 후 <최치원>을 '초탈의 서사'로 읽어내었다.

필자는 <최치원>을 분석함에 있어서 역사적 인물 최치원을 배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삼국사기』「최치원전」에 기반한 역사적 인물 최치원을 <최치원>의 해석에 일방적으로 투영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최치원>에서 귀국 후 최치원의 삶을 오로지 유력(遊歷)으로만 그려낸 것은 정치적 좌절을 우의한 것이라기보다 귀녀와의 만남을 통해 얻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www.kci.go.kr

사나운 맹수인 '호(虎)'로서의 속성은 사라지고 헌신적인 '녀(女)'로서의 면모만 강조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호녀의 삼형(三兄)들은 호녀와 대비되어 그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 마리 호랑이들의 행위가 호랑이의 본성이 아닌 인간의 윤리적 관점이 투영된 악행(惡行)으로 표현되어 있음은 주목을 요한다. <최치원>에서는 이러한 '구별하기'가 <김현감호>보다 더욱 분명하게, 작품의 시작부터 거의 끝부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물론 두 작품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김현과 최치원이 만난 대상이 모두 똑같이 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다른 것이다. 귀녀(鬼女)들은 최치원과의 이별을 앞두고 "하룻밤의 즐거움을 만나 응했으나 이로써 천년의 한(恨)을 갖게 되었다"[34]고 탄식했지만 자신들이 생전에 원했던, 현현지리(玄玄之理)를 논할 수 있는 문사(文士)를 만났으니, 이들의 한은 '일단' 풀어진 것이다. 이는 최치원도 앞서 인용한 장시(長詩)에서 언급한 바이다. 하지만 호녀는 '구별하기'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했다. '구별하기'가 호녀가 자신의 존재 의의를 증명하는 방법이었음을 감안하면,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최치원>의 귀녀들과 <김현감호>의 호녀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귀녀들이 비록 지금은 살아있는 인간은 아니지만 한때는 인간이었던 것과 달리 호녀는 애초부터 짐승이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김현감호>와 <최치원>은 인간에게 낯선 존재인 이물에 대해서도 인간/남성의 기준에 따른 위계(位階)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짐승과 인간적인 짐승, 귀녀(鬼女)와 살아있는 여자, 부덕(婦德)을 갖춘 여자와 그렇지 못한 여자 등등 이계(異界)에서부터 인간 세계까지 이러한 구별과 위계는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씨전>에서 임씨가 끝내 여우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개에 물려 죽임을 당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낯선 존재, 낯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또는 못하고), 그것을 '기이'라고 이름 붙인 후 인간/남성 중심적인 일상의 논리와 윤리의 차원에서 순치(馴致)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균열과 흔적을 남긴 채로.

---

34) <崔致遠> "只應拜一夜之歡, 從此作千年之恨"

www.kci.go.kr

## 【參考文獻】

박희병 標點·校釋『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pp.52-55, pp.60-72
이대형 편역『殊異傳』, 소명출판, 2013, pp.246-263
정범진 편역「임씨전」,『당대소설선집 앵앵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5, pp.77-93
沈既濟 <任氏傳>, 上海辭書出版社 編,『古代小說 鑑賞辭典 上冊』, 上海辭書出版社, 2004, pp.305-314
강상순「나말여초의 전기에 형상화된 사랑의 형식과 그 역사적 의미」,『우리어문연구』 제35집, 우리어문학회, 2009, pp.7-47
김경미「전기소설의 젠더화된 플롯과 닫힌 미학을 넘어서」,『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pp.213-242
김종철「서사문학사에서 본 초기 소설의 성립 문제」, 다곡이수봉선생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고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88, pp.183-207
김현양「<최치원>, 버림 혹은 떠남의 서사」,『고소설연구』 제32집, 한국고소설학회, 2011, pp.41-63
리처드 커니 지음, 이지영 옮김『이방인, 신, 괴물』, 개마고원, 2004, pp.11-44
박일용「<최치원>의 형상화 방식과 남·녀 주인공의 성적·사회적 욕망」,『한국고전연구』 제2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pp.5-32
_____「소설사의 기점과 장르적 성격 논의의 성과와 과제」,『고소설연구』 제2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7, pp.5-33
박희병「나려시대의 전기소설」,『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pp.113-172
이동환「쌍녀분기의 작자와 그 창작 배경」,『민족문화연구』 제37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2, pp.1-74
이정원「조선조 애정 전기소설의 소설시학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3, pp.1-187
임형택「羅末麗初의 傳奇文學」,『韓國文學史의 視角』, 창작과비평사, 1984, pp.9-25
張國風『太平廣記板本 考述』, 中華書局, 2004, pp.1-479
정출헌『김부식과 일연은 왜 - 삼국사기 삼국유사 엮어읽기』, 한겨레출판, 2012, pp.171-203
조혜란「남성 환타지 소설의 시작, <최치원>」,『여/성이론』, 여이연, 2003, pp.126-143
최귀묵「전기 <최치원> 다시 읽기」,『문학치료연구』 제1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pp.37-60

▣ 접 수 일 : 2015년 10월 31일
심사개시 : 2015년 11월 01일
심사완료 : 2015년 12월 10일
게재결정 : 2015년 12월 18일

www.kci.go.kr

## <要旨>

### 『金現感虎』『崔致遠』における奇異への形象化様相と差別的視線

東アジアの伝統的な叙事様式の中、傳奇・志怪は慣れていないこと、見慣れていないこととの出会い、不慣れな体験を掴んで叙事化した代表的ジャンルと言えよう。本稿では初期傳奇と評されている<金現感虎>と<崔致遠>を対象とし、作品世界の中で「奇異」がどのように形象化されているか、形象化過程においてどのような差別的視線が内在されているか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

<金現感虎>は、金現が死ぬ直前に作った虎女に対する傳に基づいている。金現にとって虎女は死ぬ瞬間まで日常の論理では理解しきれない存在であった。それは、金現が作った虎女という非日常的存在との出会いに対する金現自らの解釈なのである。金現は自分の体験した「奇異」を、天の志と受け止めるなど受動的姿勢に一貫し、その結果、彼は最後まで傍観的な眼差しを見せる。が、このような金現の態度は、第一、彼が死ぬ瞬間まで虎女の存在を「奇異」のレベルでしか理解できなかったためであり、第二、肉体的欲望に引かれ、異物に惑わされた疑いを意識したためであった。

<崔致遠>において崔致遠は金現と違い、「奇異」に全く圧倒されることはない。彼はかえってとても積極的で能動的な態度を示す。彼が興味も持っていたのは、彼が出会った二人の女性が「異界」の存在であるかどうかという点ではなく、この二人の女性が貞節を守り切ったかどうかということであった。そして、二人の鬼女は、自分を美色で人間/男性を惑わす狐や二人の旦那に仕えた女性と区別していた。

このように<金現感虎>と<崔致遠>は、「奇異」を語ることにおいて「区別」という重要性を物語っており、人間にとって見慣れていない存在である「異物」に対しても、人間/男性の基準による位階が存在するということを示している。見慣れていない存在、不慣れな経験をありのまま受け止めないで、あるいは受け止められなく、それを人間/男性中心的な日常の論理と倫理のレベルで馴致しているのである。そして、このような過程において亀裂と痕跡というものを残すわけである。

### Strange Shaping and Discriminatory Sight in *KimHyunKamHo* and *ChoiChiWon*

*KimHyunKamHo*(金現感虎) is based on the record written just before Kim Hyun's death. He couldn't understand the meaning of tiger-woman in common sense. He thought that the meeting with tiger-woman should be ordained by Providence, so it caused him to take a position of a looker-on. There are two reasons - one is that he couldn't understand tiger-woman, the other is that he was aware of suspicion to be infatuated by an alien substances.


www.kci.go.kr

In *ChoiChiWon*(崔致遠), the strange could not absolutely overpower Choi ChiWon. However he took more interest in the chastity of two ghost women. And two ghost women also tried to distinguish herself from a fox which infatuated a man, or a woman who had two husbands.

In *KimHyunKamHo* and *ChoiChiWon*, the discrimination is very important. It means that the meaning of an alien substances is decided by the criteria of man.

www.kci.go.kr